

[기획] >> 4면
위기의 대학상권

[기획] >> 5면
청년 문해력 문제

[심층] >> 7면
대외활동의 민낯

[인물] >> 12면
가수 윤하를 만나다



식막한 대학상권, 막막한 상인들

우리학교의 비대면 수업방식으로 대학상권의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 높아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까지 겹치며 상인들의 막막함은 커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 생생한 현장과 △정부△지자체△학교의 도움 정책을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사진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지속가능한 도서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대전 수상

지난달 12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지속가능한 도서관' (이하 설캠 도서관)이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이하 녹색건축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녹색건축대전은 국토교통부가 녹색 건축의 우수한 준공사례와 새로운 대국민아이디어를 발굴해 녹색 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녹색건축대전은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녹색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1차 서류 심사△2차 현장 심사△3차 종합 심사의 3단계를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설캠 도서관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리모델링했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캠 도서관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존 건축물의 외관과 노후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건물 남측 냉방 부하를 고려해 창 면적을 최소화하는 등 방향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해 에너지효율을 높였다. 이는 수직 및 수평 증축을 통해 리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모델링 건축물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다. 이에 설캠 도서관은 약 53%의 에너지소요량을 절감해 에너지효율 1+등급의 건물로 탈바꿈했다. 또한 공모작 중 예산 대비 높은 경제성과 완성도를 보였다. 김재준 우리학교 건설기획팀 팀장(이하 김 팀장)은 설캠 도서관이 녹색건축대전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로 △높은 에너지효율등급△설계 및 시공 일괄 수행△제한된 예산 대비 완성도를 꼽았다. 이어 "설캠 도서관은 각종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도서관으로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시공됐다"며 "우리 학교엔 40년 전 건축된 낡은 건물이 많아 학교 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환경 친화적 건축물 리모델링.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우리학교 SW중심대학 산학프로젝트, 국제저명학회지(SCIE) 게재돼

지난달 15일 우리학교 SW중심대학 SW산학프로젝트에서 재학생 김효민(공과·정보통신 18) 씨와 이채영(공과·정보통신 18) 씨가 참여한 논문이 공학분야 SCIE 저널의 '어플라이드 사이언스(Applied Sciences)'에 게재됐다. 해당 논문은 기존 CCTV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로 이상 상황을 감지해 인근 운전자에게 알리는 AI CCTV를 주제로 했다. 연구팀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 중인 고속도로 교통사고 2차 사고의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YOLO*모델로 도로 위 운전자에게 경고 알림 및 사진을 제공하는 방식의 AI를 이용했다. 공동연구를 수행한 오세종 우리학교 AI교육원 교수(이하 오 교수)는 이번 연구가 향후 자율주행과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효민 씨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생소했던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었다"며 "학부

생에게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교수님과 멘토의 지도로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고 전했다.

우리학교는 2019년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후 지난 4월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SW중심대학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은 산업체와 연계해 실무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 교수는 "우리학교 SW중심대학 SW산학프로젝트는 학생에게 중요한 이력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채영 씨는 "우리학교 SW중점대학엔 지식보다 열정과 의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 많다"며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중심의 SW산학프로젝트 수업을 신청하게 돼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YOLO(You Only Look Once) 모델: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객체를 감지하고 인식하는 알고리즘.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2021년 정기시험 안내

국내 최초,
최대 7개 언어 국가공인 인증(듣기·읽기)

FLEX^로
플렉스
할래?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1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25 ~ 03.03	03.28	04.16	04.30
2회	04.29 ~ 05.05	05.30	06.18	07.02
3회	08.05 ~ 08.11	09.05	09.24	10.08
4회	10.21 ~ 10.27	11.21	12.10	12.24

※ 원서접수 마감일: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문인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문인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제한없음

3. 평가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듣기·읽기 42,000원, 말하기 70,000원, 쓰기 70,000원

▶ 접수 수수료: 1,200원
▶ 수수료 환불규정: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우리학교 대학혁신지원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 받아

지난달 15일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및 3개년 종합 성과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최우수 A등급을 달성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에 진행됐던 △산업연계△여성 공학△인문역량△자율역량△특성화 사업이 하나의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 및 개편된 사업이다. 이는 3대 원칙인 △발전-균형성△가시성 편익성△혁신-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교육부가 대학별 자을 혁신을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8년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전국 143개교와 수도권 55개교가 2019년부터 3년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리학교는 대학의 발전 방향과 연계된 5대 사업전략을 설정했다. 5대 사업전략은 △교육 혁신△연구 혁신△산학

혁신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분의 경우 우리학교는 △자기주도형 글로벌 특성과 교육역량 강화△혁신적 교육체계 융복합 고도화△4차 산업혁명 대응 교육 플랫폼 첨단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자기주도형 글로벌 특성과 교육역량 강화는 우리학교 고부가치인 언어교육과 세계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적 교육체계 융복합 고도화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 혁신을 단행하며 교육체계 고도화에 집중한다. 또한 우리학교 학생의 현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실부 학습자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교육 플랫폼 첨단화는 미래 교육시스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연구△학과교육운영 전반의 혁신을 도모한다. 연구 혁신 부문에선 국가전략지원 연구 강화 및 글로벌 연구 역량 기반 심화를 달성 과제로 설정했다. 지역학 중심의

연구소를 강화 및 연계를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글로벌 고부가치 강화를 위한 학문 후속세대를 지원한다. 산학 혁신 부문에선 현장 중심의 글로벌 산학체계 심화를 과제로 사업을 운영했다. 글로벌 산업체 수요 기관의 협력 및 재학생 대상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글로벌 교육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융복합을 주제로 교육영역 중심의 사업을 전개한 자율성과지표에서도 목표치를 달성했다. 자율성과지표는 5대 사업전략과 대응하는 지표다. 그 중 교육과정 혁신화 지수에선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만족도△교육의 질과 개선 정도△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의 수를 지표값으로 설정해 측정했다. 우리학교는 2년 연속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했다.

김윤수 우리학교 교육혁신원 교육과정 혁신팀장이 하 김 팀장은 우리학교가 이번 대학혁신지원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김 팀장은 “우리학교는 이번 해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음 해에도 혁신사업과 유사한 일반재정지원 사업 유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학교는 일반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다국어 기반 데이터 리더로서 교육 확대 등 지속적으로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우리학교 교육 가치인 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백신 접종 후 유고결석 인정돼

지난달 13일부터 우리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유고결석을 인정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학생의 수업 참여가 어렵단 이유다. 백신 유고결석 인정은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르며 접종일 기준 일주일 내로 학생이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담당 교수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해당 방침은 지난달 13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교육부의 권고를 따랐다”고 답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8월 9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학생에 한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학교의 백신 유고결석 인정에 대해 김효정(중

국어·중의통 21) 씨는 “비대면 수업 중엔 녹화 강의가 존재해 백신 접종일에도 부담이 크진 않다”며 “대면 수업 시 백신 접종일과 수업이 겹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김채은(아시아·마인어 21) 씨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발열 증상이 있어 2차 접종 때 출석에 대한 걱정이 컸다”며 “이번 백신 유고결석 인정으로 인해 학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신 유

고결석 인정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조별 활동과 발표가 많은 수업의 경우 백신 유고결석 제도를 악용하는 학생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르기보단 학교측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고 밝혔다.

백신 접종과 시험 일정이 겹칠 경우 공결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던 지적도 있다. 지난달 12일 백신 공결제 관련 지침을 발표한 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에선

시험과 백신 접종일이 겹칠 경우 이를 미리 교수에게 알리고 대체 과제를 받거나 시험 일시 변경을 요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미비하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종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따로 전달받은 지침은 없다”며 “이번 백신 유고결석제가 모두 담당 교수의 재량에 달린 만큼 따로 교수님과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10월 이후 대형 강의 및 4년제 대학의 대면 수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윤은경 우리학교 아랍어과 교수, ‘2021 세계 아랍어과 연맹 국제학술대회’ 한국 대표로 참가해

지난달 2일부터 사흘간 윤은경 우리학교 아랍어과 교수(이하 윤 교수)가 ‘2021 세계 아랍어과 연맹 국제학술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했다. 비대면으로 시행된 이번 대회는 뉴노멀 시대에 효율적인 아랍어 교수법과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아랍어 교육계를 대표해 △우리학교 아랍어과의 교육과정과 교수법△우리학교 아랍어과의 7+1 해외 파견 프로그램△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효율적 아랍어 교수법△세계 아랍어과 연맹 회원 대학 간 공동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정보 교환△아랍어 교수법 연구 및 연구 역량 강화 방안△아랍어 학술지의 국제저명학술지 등재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윤 교수는 학술 대회 폐막식에서 모든 참가자를 대표해 폐막 성명서를 낭독하며 학술대회를 끝마쳤다.

윤 교수는 “56년 전통의 우리학교 아랍어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아랍어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한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계 아랍어과 연맹 안에서 교류하며 효율적인 아랍어과 확대와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아랍어과 연맹은 △아랍어 및 아랍학 관련 학과 간 학술 교류△아랍어 교육 과정 연구 △효율적인 아랍어 교수법 개발을 목표로 2018년 창설된 국제학술단체로서 △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유럽 등 전세계 180여 개 대학 아랍어과가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다. 우리 학교 아랍어과는 2019년 12월에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서양어대학 창립 40주년 기념 제19대 학장 취임식 성황리에 마쳐

지난달 13일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컴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서양어대학 창립 40주년 기념 제19대 학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됐다. 이번 취임식은 단과대학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서양어대학의 역사를 기리고 제19대 학장 취임을 맞이해 서양어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뜻을 모으고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총장 환영사△축사△감사패 증정△취임사 후 교가제창 및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1984년 개교 당시 5개 학과 중 3개를 보유하고 있는 서양어대학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지만 장은수 서양어대학 제18대 학장의 노고를 기리고 신임 학장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어 △정진석 국회외대장소장강행 전 주인도네시아대

민국대사관 대사△전성철 세이브상사 대표이사(이하 전 대표)이사△가축사를 진행했다.

서양어대학 제19대 학장에 취임한 김시홍 학장(이하 김 학장)은 취임사에서 “오늘날 대학의 현실과 서양어대학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절박한 심정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며 기획 의도를 전했다. 김 학장은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지원 부족△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 위기 상황에 처한 것△4차산업혁명 및 AI시대 교육의 변화를 지적했다. 이에 서양어대학의 재부흥을 위해 이번 학기 비교과 교육 과정에서 AI와 언어 빅데이터 수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학장은 “이번 행사는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신임 학장의 방향 제시와 구성원의 동조로 성료될 수 있었다”며 “서양어대학의 부활을 위해 △교수진△교직원△동문△학생의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대면활동 전면 중단, 힘 잃어가는 동아리 문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후 대학 동아리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모임을 대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 점차 줄고 있다. 동아리는 존폐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동아리 문화의 맥이 끊길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대해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와 각 동아리에선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방역지침으로 인한 동아리의 고충△줄어드는 동아리에 대한 관심△위기 극복 방안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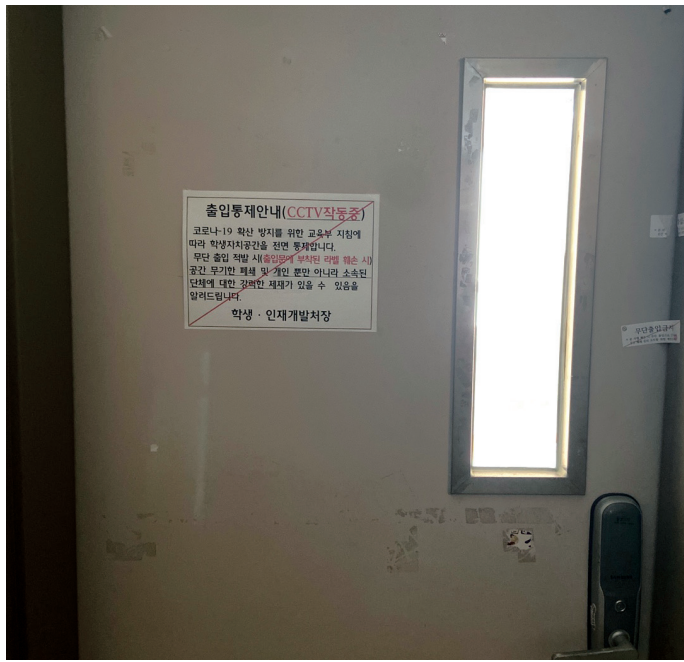
◆위기를 맞은 교내 동아리 활동

우리학교 수업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후 대부분의 동아리가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동연 홈페이지에 게시된 ‘코로나19 방역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회 참가△동아리방 사용△모임△운동장 개방△기타 행사를 금지해왔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비대면으로 동아리 모임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이에 다양한 분과의 동아리로부터 고충이 흘러나왔다. 설캠 중앙토론동아리 노곳페(이하 노곳페) 회장 김영웅(서양어·스페인어 17) 씨는 “토론은 말의 호흡과 전달이 중요하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속도가 더디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부원과 신입부원 간 만남이 이뤄지기 어려워 동아리 내 애색한 분위기가 흐른다”며 비대면 활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봉사·체육 분과 동아리의 경우 활동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 벽화봉사동아리 칠하담(이하 칠하담) 회장 김수현(상경·국통 20)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활동을 아예 못 했다”며 “벽화 작업은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하는 활동인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체육 분과 동아리인 설캠 농구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구부 소속인 고경찬(일본·일언문 16) 씨는 “오바마홀과 운동장은 학교 방침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학교 외부 농구장 역시 다수의 인원이 사용할 수 없어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점점 시들어가는 동아리 문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환경 속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 외대학보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동아리 활동 자체를 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 조사 응답자의 57.1%였다. 그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를 이유로 든 응답자는 60%에 달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 중 41.7%가 동아리 활동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이유로 ‘비대면 활동이 불만족스러워서’라 답했다. 또한 김예림(경상·GBT 20) 씨는 “입학 후 교내 동아리에 가입했으나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활동의욕이 생기지 않았다”며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 이유를 밝혔다. 저지 않은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선 동아리 홍보가 필수적인데 대면으로 직접 홍보를 하지 못하는 것 역시 난점으로 작용한다. 동연 회칙 제



▲폐쇄된 동아리실의 모습

대면활동이 불가능하다 보니 같이 활동을 하며 추억을 쌓아야 할 부원들끼리도 친해지기 어려운 있는 상황이다. 김영웅 노곳페 회장은 “차후 임원진을 구성할 때 곤란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적절한 인스인제가 이뤄지지 못해 동아리가 △역사△특색△활동 방향을 상실하면 이는 동아리 문화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동아리의 역사가 긴 경우 졸업한 선배와 후배 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연을 맺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부원 간 네트워크가 끊기면 이러한 인간관계 형성 역시 쉽지 않다. 설캠 농구부 소속 고경찬 씨는 “취미를 공유하는 선배들에게 대학 밖 사회의 정보를 얻는 건 동아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큰 소득이다”며 “이번 자리를 마련할 수 없는 것도 모자라 현재 부

정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1. 2022학년도 전기 입시 일정

구 분	특별전형 (First Round)	일반전형 (Second Round)
원서 접수	2021.10.11(월) ~ 10.25(월)	2021.11.15(월) ~ 11.29(월)
고사장 발표	2021.11.03(목) 15:00	2021.12.08(수) 15:00
면접전형	2021.11.06(토) 10:00 ~ 09:00 예정	2021.12.11(토) 10:00 ~ 09: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11.18(목) 15:00	2021.12.23(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11.22(월) ~ 11.26(금)	2021.12.27(월) ~ 12.31(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한 총장실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원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치제 제출

*별도 접수 접수한 '내재' 연초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리,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여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학과별 액전제)
나. 재학생 장학우수 장학금(학과별 액전제)
다. 원서 접수 장학금(대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 TESOL 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 관련 석사학위수지자, TESOL 자격증 취득자)
마. TESOL 연구과정자격을 과정수료자 우대
바. 북수학부프로그램(영문학과), 3+1 프로그램(해외대학)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kiriri College)
아. 추가지원 이수트랙 산생논문 - 졸업연구보고서 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연락처

TEL 02-2713-3521 ~ 2713-3528 (우) 02-450 서울캠퍼스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YA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2학년도 전기 입시 일정

구 분	특별전형 (First Round)	일반전형 (Second Round)
원서 접수	2021.04.28(일) ~ 05.10(월)	2021.05.28(금) ~ 06.14(월)
고사장 발표	2021.05.20(목) 15:00	2021.06.23(수) 15:00
면접전형	2021.05.22(토) 10:00 ~ 09:00 예정	2021.06.26(토) 10:00 ~ 09: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06.04(금) 15:00	2021.07.09(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06.07(월) ~ 06.11(금)	2021.07.12(월) ~ 07.16(금)

* 우리,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여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총서면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합 시 불합 처리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과 고사일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함)
~ 신입생 장학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업장려 장학금
~ 원로 장학금
나. 취업·연수·연구·여행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별 교과수업 장학금의 50%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전문대학원)

TEL 02-2713-2428, 2429 FAX 02-2713-3358 (우) 02-450 서울캠퍼스 동대문구 이문로 107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3. 지원자격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원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원서작성URL: www.jinhakapply.com)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치제 제출

삭막한 대학상권, 막막한 상인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상황이 2년간 지속되며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현저히 줄었다. 이는 자연스레 양캠퍼스(이하 양점) 대학상권에 큰 타격을 입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영업시

간 단축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양점 대학상권의 생생한 현장을 알아보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의 도움 방안과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을 알아보자.

◆적막한 서울캠퍼스의 상권



▲에향 칼국수

후문에서 13년째 '에향 칼국수'를 운영하는 A 씨의 첫마디는 "이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였다. "매출이 60% 줄어 겨우 운영하고 있다"며 "예전엔 점심에 줄을 서서 먹던 맛집으로 유명했지만 현재는 단골손님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재료비가 최대 50%까지 올라 수익이 나지 않는 메뉴를 없애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식 같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별일을 할 만큼 수익이 나진 않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 중"이라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A 씨의 이번 해 가장 큰 바람은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닐지라도 학생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1988

외대앞역 3분 거리에서 주점 '1988'을 운영하는 B 씨는 영업시간 제한까지 겹쳐 "매출이 80%가량 줄었다"고 말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현재 1988 주점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주점은 8시 이후 방문하는 손님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은 곧 주점의 폐업을 바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9시까지 영업할 땐 하루에 받은 손님이 최대 6팀을 넘지 못했다"며 "영업시간이 연장된 지금은 비교적 낫지만 여전히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고 밝혔다. "금요일이면 거리가 꼭 찾지만 이젠 불금도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인건비△월세△전기세△재료비를 감당하며 가게를 운영하기보단 장사를 하지 않은 채 월세만 내며 버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상인이 많은 상태"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정반노래방

정문에서 '정반노래방'을 운영 중인 C 씨는 대기업 정년퇴직 후 아들이 자려준 노래방이라고 소개했다.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삶의

나이었어요." C 씨는 노래방에 온 학생들 덕분에 일흔이 넘은 나이에 또 젊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취재 온 기자와 오늘 처음 대화를 나눈다며 반갑단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이후 C 씨는 그동안 묵혀뒀던 속마음을 모두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2년 동안 보증금을 거의 다 잃었다"며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나온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술 한잔 걸치고 오는 곳"이 노래방인데 10시까지이면 누가 오나요?" C 씨는 영업시간 제한이 유흥시설을 죽이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잘 사는 사람들의 탁상행정으로 정해진 거리두기 단계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소상공인을 생각해 영업시간을 12시까지 만이라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C 씨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전환돼 반갑게 학생들을 맞이하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고립된 글로벌캠퍼스 대학상권, 얼어가는 지역 경제



▲철판과 친구들

"가게를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요."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생들에게 유명식당으로 통하는 '철판과 친구들'은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다. 가게를 운영하는 D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아 지난 해 가게를 내놔지만 팔리지 않아 이번 해 4월에 다시 가게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지도 실패해 D 씨는 가게를 옮겨 겨우 먹기로 운영 중이다. 모현사거리에 대해선 한마디로 '죽음의 거리'라고 표현했다. "하기 중이지만 가장 힘들었던 코로나19 이전 겨울 밤하 기간보다도 매출이 떨어진다"며 "보험을 해약하고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토로했다. 모현 주변에 가게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고 밝혔다. "모현 인근 주민은 가게를 분당이나 서현 등의 변화가오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없으면 버려진 동네인 셈이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렇게 D 씨는 희망조차 잃은 채 가게가 팔리자만을 기다리고 있다.



▲주류창고

글캠 주변에서 문을 연 주점은 손에 꼽힌다. 그럼에도 가게를 운영하는 '주류창고' 상인 D 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주점은 살아남기 어려워요"라고 말했다. 주류창고도 영업시간 제한의 타격을 피할 순 없었다. "매출에 타격을 입어 개업 시간을 점상으로 앞당겼지만 술집이란 이미지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포기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개강홍희 뿔뿔이△선배와의 밥약△새내기 간 애석한 만남 등 학생들의 북적거림이 주점을 채웠는데 요즘처럼 학생이 없는 주점은 재미도 없어요" D 씨는 시골벽척하런 학기 중을 그리워한다. 방학 때 손님을 아예 한 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하기 중이지만 벌써 겨울방학 운영이 걱정돼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침체된 우리 대학가를 위한 안전망은?

서울특별시 우리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통해 정문부터 외대앞역까지 이어지는 상권인 휘경로 2길과 휘경로 3길의 상권 현황을 살펴봤다. 2019년 일반 음식점 기준 총 223개의 가게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해엔 205개의 가게만이 남았다. 주점의 경우에도 2019년 기준 48개에서 이번 해 37개로 줄었다.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동대문구 일반 음식점 폐업 건은 총 351건이었으며, 이번 해 7월부터 9월 24일까지를 기준으로 총 60건이 신고됐다.

지리적 특성상 외부의 접근성이 낮은 글캠 상권의 침체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글캠이 위치한 모현읍의 경우 학교가 있기에 상권이 형성됐던 만큼 지역과의 연계성이 강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모현읍의 총 유동인구는 6,663,548명이었지만 같은 해 4월 기준 총 유동인구는 5,001,487명으로 줄었다. 경기도 상권정책지원 서비스를 통해 조사한 결과, 모현읍의 외식업 1년 생존율은 지난 해 77.6%에서 이번 해 63.8%로 13.8% 포인트 감소했다. 글캠을 포함해 많은 대학이 위치한 용인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지원실적 현황에 따르면 용인시 기준 2019년엔 4,988건의 신용보증지원이 이뤄졌지만 지난해엔 11,7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청춘의 열기와 뜨거운 열의 상징이던 대학가는 이제 열매야 됐다. 학생으로 북적여야 할 거리는 활기를 잃은 지 오래다. 폐업한 가게의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보여주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모두 대변하지 못했다.

대학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정부△지자체△학교에서 시도했다. 정부에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도 지역별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동대문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200여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 융대 정책을 펼쳤다. 용인시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소상공인 특별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수출업자 지원센터 운영△용인시 자체 지원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대책을 세웠다. 또한 경기도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을 지원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의 상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일부 학과는 식당과의 연계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LD학부는 △고수점담△크래커치 커피△탕화기공무△평행선 등과의 협약을 통한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글캠의 경우 제42대 총학생회 '온(ON)'이 '온(ON)식당' 행사를 진행해 '청춘연가'와 '이태리식당'의 음식을 각각 학생 80명에게 제공했다.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안내와 한정적인 지원 대상은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사회적 약자△중·저 소득자△저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의 소상공인 무이자 융대 정책의 경우 취재를 진행했던 설캠 상권 7곳 모두 해당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용인시가 진행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취재를 진행한 대부분 상인이 이를 지원받았지만 SNS 사용이 서툰 상인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동대문구와 용인시 모두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SNS를 통해서만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용인시의 자체 지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은 끝난지 오래다. 그러나 아직 해당 사업이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노출되어 소상공인의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 하반기 5차 지원재난금인 '행복지원자금' 지급과 '손실보상법'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청에서도 이번 해 하반기 50억 규모의 중소기업자금 마련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상권은 학생 없이 살아날 수 없다. 상인들은 가격을 동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학생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지역 사회의 도움과 학교의 자체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문해력 위험 신호, 글을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사람들

문해력이란 단순히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 글의 의미를 파악해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당신의 문해력'에 나타난 학생의 문해력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지난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조사결

과 우리나라의 문해력이 해가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던 통계가 발표됐다. △계속되는 문해력 저하 논란△우리학교 학생들의 문해력 실태와 인식△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계속되는 우리나라의 문해력 저하 논란

지난 3월 EBS에서 방영된 '당신의 문해력'이란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바 있다.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문해력 부족으로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담아 시청자에게 충격을 안겼다. 학생들은 '변호'나 '양분'과 같은 기본적인 한자어의 뜻을 알지 못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긴 글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세 줄로 요약하는 선생님의 고충도 그려졌다. 성인이 된 후 보고서나 기화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의 사례도 담겼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도 문해력 부족의 심각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됐단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문해력 저하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 3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고 언론사는 이를 '사흘 연휴'라고 보도했다. 이를 접한 많은 이들이 사흘의 뜻을 혼동해 포털사이트에 검색했고, 사흘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또한 이동진 영화 평론가가 영화 '기생충'을 두고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월'란 한 줄 평을 남기자 화제가 됐다. '명장'과 '직조'란 단어가 지나치게 어렵단 반응과 이를 어려운 단어로 느끼는 게 문제란 반응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력에 관한 각종 조사의 정량적 지표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만 15살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가장 최근인 2018년엔 6위까지 떨어졌다. 특히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전체 조사 대상의 32.9%에 이르렀다. 청년층의 경우 지난해 취업포털 '사람인'이 한글날을 앞두고 기업 191개사를 대상으로 MZ세대 직원의 국어 능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5%가 이들의 국어 능력이 이전 세대보다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단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22%가 일상생활에서 어휘력과 논리력 부족으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 입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 해 국제성인연망조사(PIAACC)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문해력은 △35세에서 44세는 평균 △45세에서 54세는 하위권 △55세에서 65세에는 최하위권임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문해력 부족 원인 중 하나로 독서 부족을 든다. 스마트폰의 일상화가 독서를 멀리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해 1월에 발표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중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은 65.3%로, 20년 전에 비해 21.5%포인트 떨어진 역대 최저 수치다. 대학생 독서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1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지난해 대학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재학생 1인당 대출 권수는

지난 2011년 8.3권에서 지난해 4.0권으로 감소했다. 황병익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하 황 교수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공금증이 해결되다 보니 사람들이 책을 읽어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책과 점점 멀어진다"며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화면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감각은 독서에 길들여지지 못한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학생의 문해력 실태

문해력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읽은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재구성하는 능력△활용하는 능력까지도 포함된다. 문해력은 대학 생활에서 이뤄지는 △글쓰기△발표△토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 임현찬 우리학교 미래브라교양대학 교수는 "우리학교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제시된 문제에 따라 글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제를 잘 수행하는 편이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제시해 논제의 폭넓은 이해를 보여주는 학생은 대략 5% 수준이다"며 "1,000자 혹은 800자 제한 같이 틀을 정해 논리적 결과를 요구하는 답안 작성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발표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에 대해선 "5% 정도의 학생만이 질문이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대부분은 강의 내용을 그대로 읊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외대학보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우리학교 학생의 문해력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53.3%의 응답자가 긴 호흡의 글을 읽는 데 거부감이 있다고 답했다. '감상문이나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제를 선호하는 편인가'란 질문에 60%의 응답자가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의 과반수가 긴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작업에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학교 학생의 전반적인 문해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란 질문에 △보통이다△나쁘다△매우 나쁘다'가 각각 △36.7%△43.3%△20%를 차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해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책'을 자주 읽지 않아서'가 3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뉴미디어 이용의 증가해서'와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돼서'가 각각 33.3%와 26.7%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엔 '공교육 시스템이 문해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해서'도 있었다. 김나현(영·E·L·T·18) 씨는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많은 사람이 글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동기 중에서라도 스마트폰의 보급과 뉴미디어 이용의 증가로 짧은

글에 익숙해진 나머지 조금만 긴 글을 보내면 세 줄로 요약해달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이 필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86.7%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문해력이 사회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능력이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책이나 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와 '보고서 및 과제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가 각각 41.7%와 27.7%로 가장 많았다. 또한 '문해력 향상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란 질문에 △꾸준한 독서△신문 기사 정독 및 뉴스 신청△일기·블로그 등 단문이라도 글을 자주 써보기△꾸준한 국어 공부'가 각각 △63.3%△23.3%△10%△3.3%를 차지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선 꾸준히 긴 글을 읽거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인식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야 할 방안

문해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많은 대학이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양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중앙대학교 등은 자체 교재를 발간해 글쓰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자체 교재를 발행해 미래브라빈문장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 국가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문해교육센터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문해교육 통계 및 실태조사를 착수한다. 2006년부터 저학력과 비문해 성인 대상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으며 2019년까지 약 41만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또한 기초 문해 수준 진단을 통한 국민 기초 문해 역량 강화를 위해 3년 주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해 능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다독과 글쓰기 연습이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윤준재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는 "문해력은 아무리 사회가 디지털화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능력이다."며 "글을 제대로 읽고 써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활동을 많이 해야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개인과 사회 각 계층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 10. 18(월) ~ 10. 22(금)	2021.11. 22(월) ~ 11. 26(금)
면접전형	2021. 11. 6(토) 10:00	2021. 12. 11(토) 10:00
합격자 발표	2021. 11. 9(금) 16:00 예정	2021. 12. 24(금) 16:00 예정
등록예정금 납부	2021. 11. 22(월) ~ 26(금) 예정	2021. 12. 27(월) ~ 31(금) 예정

◆모집 전공

모집 과정	모 집 전 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영어교육 •어린언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독서·논술교육 •혁신리더교육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접수방법

· STEP1-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우웨이아플라이Uwayapply.com))
· STEP2-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일부 전문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합 시 불합격 처리함다..

○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용인시 구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영어능력 : 영·자어를 1시간 외대영어학원 출구 앞에서 5분 가량
○ 출 제 이 : gse.hufs.ac.kr
○ 이 메 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GLI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동화 속으로, 잘츠부르크

2019년 2학기 교환학생에 선발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대학교로 떠났다. 애초에 1년을 목표한 타지 생활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첫 학기는 주로 여행을 하며 다양한 도시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교 수업을 들었고 금요일과 주말을 이용해 주변 국가로 여행을 떠났다. 유럽은 교통수단 이용료가 저렴해 금전적 부담이 적다. 또한 교환학생 교류단체인 ESN(Erasmus Student Network)에 가입해 학생증 카드를 받으면 교통수단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많은 곳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 △런던△포르투△프라하를 추천하고 싶다. △원 없이 뮤지컬을 볼 수 있었던 런던△매 순간이 그림 같던 포르투△밤이 더 아름답던 낭만적인 프라하 모두 기억에 남는다. 학생을 위한 할인 혜택이 많아 돈을 절약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학생증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잘츠부르크에서의 소소한 일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잘츠부르크 한인 민박에서 생활하던 중 사장님께 자전거를 선물 받았다. 알프스 산을 배경으로 노래를 들으며 자전거를 타고 등교했던 게 가장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 외에도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과 비밀 산타 이벤트를 기획해 서로를 위한 선물을 사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기억도 소중하다. 나의 비밀 산타는 프랑스 친구였는데 프랑스 가정식을 대접받았다. 삶은 감자



위에 구운 치즈를 올리는 아주 간단한 요리법이라 다소 실망했지만 시식 후 프랑스 가정식에 반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한동안 프랑스 치즈를 찬양하며 다녔다.

오스트리아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잘 가지 않는 생소한 나라다. 우리 학교에서도 오스트리아는 독일어 사투리를 배워줄 수 있단 우려로 대부분 독일 유학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떠났던 교환학생이지만 만족도는 200%였다. 동화 속에 사는 기분이었다. 다른 도시에 비해 한국인이 적어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었고 외국어를 쓰는 빈도도 잦았다. 큰 도시 생활을 기대하고 온다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잘츠부르크 도시 골목마다 오밀조밀한 행복이 많았고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교환학생으로 떠나기 전 난 항상 나이에 집착하며 나 자신을 깎아내렸다. 타인과 비교하며 뒤처지는 느낌을 받아 두려웠다. 하지만 잘츠부르크 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대학에 온 50대 학생을 보고 내 가능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뭔가를 시작할 때 나이가 중요하지 않단 점을 깨달았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난 뒤 '기숙

사에 있을 시간에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 잘츠부르크를 더 구경할 걸', '과제도 중요하지만, 여행을 한 번이라도 더 떠날 걸'과 같은 후회가 많이 남았다. 그래서 귀국 후 열심히 독일어 공부를 해 자격증을 땀다. 자격증을 땀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독일에서의 파견 학생 기회를 포기해야 했기에 유럽 생활에 더욱 미련이 남았다. 언젠가 다시 유럽으로 가 인턴 생활을 하고 해외 취업을 하길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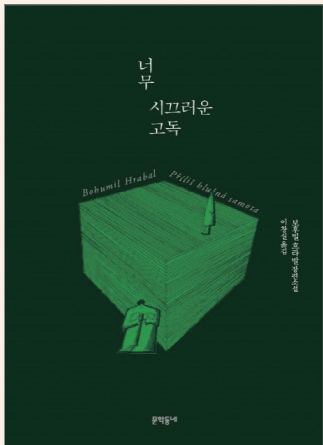


정윤재(서양어 · 독일어 17)

체코

<너무 시끄러운 고독>

- 오직 인간만이 인간적일 수 있다 -



체코의 작가 '보후밀 흐라발' (이하 흐라발)은 1914년에 태어나 공산주의 정권의 감시 아래 약 34년 간 작가의 삶을 이어갔다. 흐라발은 프라하의 카렐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1939년 나치에 의해 대학이 폐쇄된 뒤 △단역 연극배우△전보 배달부△전신 기사△제강소 노동자△창고업자△철도원△폐지 꾸리는 인부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한다. 흐라발이 발표했던 대부분의 소설 작품들이 체코 정부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고 출판이 금지되기도 그는 끝까지 체코를 떠나지 않았다. 이러한 약력이 보여주듯 흐라발은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았다기보다 살아 있기에 글을 썼던 사람이다. 책 '너무 시끄러운 고독' 역시 흐라발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실존의 기록이다.

주인공 '한타'는 35번째 폐지 압축공으로 일하고 있다. 지하에 위치한 그의 작업실은 △생쥐△모물△책△폐지 더미로 가득 차 있다. 한타는 언제나 술에 취한 채 폐지 속에 섞여 있는 헌책을 뒤지고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하루 종일 읽으며 그 뜻을 음미하고 사색에 빠진다. 혹은 그가 사랑했던 연인이나 아를 다웠던 젊은 시절을 몽롱한 상태로 회상하거나 삶의 부조리함에 대해 생각한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한타의 교양은 차고 넘쳤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피테△노자△헤겔의 환영을 보는 지경에 이른다. 한타에게 있어 책은 고독의 피신처이자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성을 지닌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평소 한타를 고깝게 보던 소장은 그를 해고하고 그보다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주의 노동단원 청년 2명을 고용한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한타는 실존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1960년대 체코 사회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기치로 사회를 획일화시킨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지배했다. 인간은 사회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써 노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녔다.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사회에서 인간의 개별성이 살아 숨 쉴 틈은 없었다. 작중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삶의 이유로 삼았던 한타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유로 직업을 잃게 된 장면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흐라발은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했을까? 소설 속 반복되는 한타의 대사인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 그래도 저 하늘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연민과 사랑이 분명 존재한다"가 힌트가 될 수 있다. 하늘로 표상되는 신 혹은 운명은 우리가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인간은 오히려 같은 인간이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데 일조한다. 하지만 동시에 오직 인간만이 연민과 사랑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

정병비 기자 02jbb@hufs.ac.kr

글로벌캠퍼스 설립 41주년 기념 '캠퍼스 SSUL展'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③ 명수당의 진짜 주인은 누구? 명수당 오리와 오골계 이야기



▲망각의 숲 전경

용인-27·28 총파업, 서울-26 비상학생총회



▲외대학보 801호 명수당 오리 관련 기사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비공식 마스코트로 회자되는 동물은 오리다. 글캠 명수당에 가면 △한가롭게 호수 주변을 걷고△여유롭게 헤엄치고△바위 위에서 깃털을 정리하는 오리 무리를 목격할 수 있다. 학생들은 글캠 학생회관에서 명수당 쪽으로 넘어오는 오리를 보며 "오리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니냐"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 오리는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때로는 간식을 쟁취하러 학생에게 먼저 다가간다. 그들은 이미 명실상부한 명수당의 주인으로 여겨진다.

이 오리들은 언제부터 명수당에 오게 됐을까? 외대학보 801호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월 13일 글캠에선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개강투쟁선포식'이 진행됐다. 이때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등록금의 현물 납부를 주장하며 '나, 등록금'이란 리플트를 목에 건 오리 60마리를 학생회관에서 분관 앞까지 몰고 갔다. 총학 중앙운영위원회는 오리를 들고 총장실에 방문한 후 명수당에 놓아줬고 이때 명수당에 자리 잡은 오리가 지금까지 명수당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태양목장 비석(출처: 미디어 모현)

한편 우리가 명수당에 자리하기 전 '오골계'가 그 자리에 있었던 전설이 전해진다. 명수당 옆엔 글캠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 메타세콰이아 나무들이 글캠 설립 이전부터 존재했다. 글캠이 조성되기 직전인 1970년대 말까지 있었던 사설 방목장에서 오골계 등을 목축하면서 산림을 형성했고 캠퍼스가 조성된 1980년대 이후부터 학생의 휴식 장소로 탈바꿈해 현재의 '망각의 숲'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현재는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으나 망각의 숲 주변에 있던 비석 상단엔 '태양목장'이란 간판과 '문화재 관리지정장소 천연기념물 제 135호 오골계'란 문구가 새겨져 있어 이곳의 원래 주인은 오리가 아닌 오골계였던 것을 증명한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대외활동,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변화 필요할 때

대학생이 캠퍼스를 벗어나 기업 및 단체의 △기자단△봉사단△홍보대사 등으로 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대외활동’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상당수의 대학생이 대외활동을 취업에 필요한 핵심 스펙으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외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기업 및 단체가 이를 악

용해 참여자의 권리를 빼앗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대외활동의 △현황△장점△문제점△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대외활동의 현주소

대외활동이란 대학생이 대학교 외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 대외활동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주로 모집하며 △기자단△기획단△마케터△봉사단△서포터즈△홍보대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대외활동 참여자는 기업 및 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주요 행사에 참여해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한다.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외활동의 개수와 종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조사한 ‘2013년 대학생 대외활동 경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1,464개의 대외활동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외활동 정보 사이트 ‘쌍긱’에 의하면 지난해 4월부터 이번 해 4월까지 1년간 등록된 대외활동은 총 3,796건으로 조사됐다. 8년 사이 약 2.6배 증가한 수치다. 대외활동의 영향력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생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경력을 채워 넣기 위해 대외활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기업 및 단체가 대외활동의 혜택으로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 시켜 주는 등 큰 가치를 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대외활동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더욱 늘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대두돼 학점에 대한 의미가 퇴색됐다. 이에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에 더욱 신경을 쏟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내 활동 참여 기회도 축소돼 많은 대학생이 대외활동으로 몰리는 추세다.

대외활동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의 참여 현황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외대학보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외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나요?’란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대외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2.4%가 서포터즈/홍보대사△47.6%가 기자단△38.1%가 봉사단△23.8%가 멘토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활동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선 모든 응답자가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서’를 꼽았다. 이어 △‘평소 관심이 있던 대외활동이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금전적 혜택(상금, 활동비)을 받으려고’가 각각 △76.2%△47.4%△19.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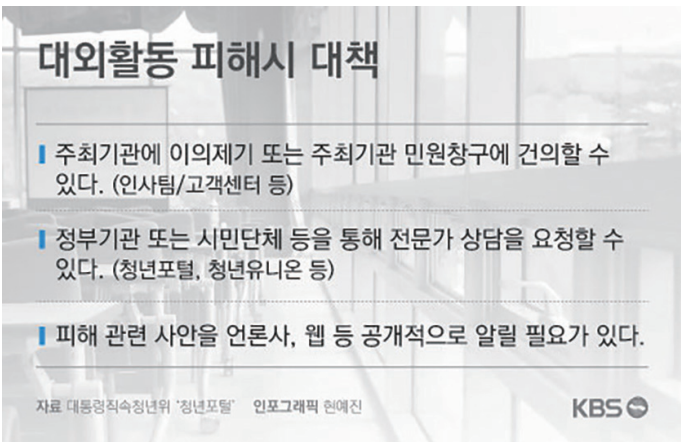
◆대외활동, 양날의 검

대외활동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다양한 경험과 혜택을 준단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대외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0.5%가 ‘스펙’을 꼽았다. 이어 △‘인적 자원’ △‘상금, 활동비 등의 금전적 혜택’ △‘실무자와의 만남’이 각각 △47.6%△42.9%△38.1%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우(사회·미디어 19)씨는 “학업을 통해선 접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대외활동을 통해 할 수 있었다”며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며 진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연수(통번역·영어 19)씨는 “대외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 교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대외활동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여러 문제점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대외활동 참여자는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 및 노동에 비해 적은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2015년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에서 대외활동을 경험한 대학생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5%가 피해를 경험

했으며 그중 22.7%가 ‘근로 대가 미지급’을 꼽았다. 한 언론사의 전 사회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조현수(사회·미디어 18)씨는 “회의와 활동을 위해 모임을 가져야 했으나 지급되는 활동비가 없어 사비로 카페를 가거나 스터디룸을 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 혜택으로 전시회 티켓 10장만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서포터즈에게 지인을 데리고 오란 일종의 마케팅이라 느껴졌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대학생이 사비를 지출해야 참여할 수 있는 유료 대외활동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한 민간 정기간행물 영리 업체가 운영하는 기자단의 경우, 합격자로부터 15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원고료를 받을 만한 전문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료는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가입비 사용처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지나친 가입비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학생은 해촉되거나 형사고소 위협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자단으로 활동했던 우리학교 재학생 A씨는 “비대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활동비까지 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스펙을 쌓기 위해 활동을 끝마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대외활동을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 사설 인터넷 강의 업체의 경



▲대외활동 피해시 대책(출처: KBS)

우, 일명 ‘자기계발 커뮤니티’란 대외활동을 통해 강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를 취한다. 이 대외활동에 선발되기 위해선 참여자가 업체 측에 49,000원을 지불하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외활동이 아닌 일종의 상술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외활동에 참여했던 우리학교 재학생 B씨는 “돈을 내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회사의 홍보 활동까지 한 셈이다”며 “장학금 혜택 또한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 및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외활동과 관련해 투명하지 못한 정보와 후기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평소 대외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링크커리어△에브리타임△캠퍼스픽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90.5%로, SNS와 포털사이트가 76.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얻은 대외활동 관련 정보 및 후기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질문에 응답자의 62%는 ‘대체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76%가 관련 정보 및 후기가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문제는 대외활동 주최 기업 및 단체가 온라인상의 관련 정보와 후기를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단 점이다. SNS와 포털사이트에 해당 대외활동을 검색했을 때 긍정적인 후기만이 노출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다. 한 브랜드 관련

대외활동에 참여했던 우리학교 재학생 C씨는 “활동 임기가 끝난 직후 주최 측에서 포털사이트 개인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며 “주최 측 관계자에게 내용을 확인받고 게시물을 올려야 했기에 해당 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솔직하게 작성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대외활동의 민낯, 걷어내기 위해선

대외활동을 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대외활동 주최 기업 및 단체와 참여 학생 사이의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면 참여자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러나 대외활동은 대부분 단기간으로 진행되고 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기에 근로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경우 대외활동 참여자는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대외활동 참여자가 부당한 상황으로부터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 이기에 적절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단 의견이 존재한다. 김민수 청년 유니온 위원장은 “대외활동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더 이상 청년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대외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7년 청년위원회는 대외활동 관련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똑똑한 대외활동 가이드’를 마련했다. 대학생용 가이드엔 대외활동 참여자가 겪는 피해사례와 대처 방법을, 주최기관용 가이드엔 △기획△모집공고△운영 단계에서 기업 및 단체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아 배포했다. 또한 청년포털 온라인 게시판엔 대외활동 참여자가 피해 사례를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청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대외활동 관련 피해 문제를 관할하는 단체 및 기관은 부재한 상태다.

한편 대외활동을 주최하는 기업 및 단체의 자성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소속 변호사는 “대학생이 착취당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기업 및 단체가 윤리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대외활동 주체 기관은 적은 돈으로 학생을 이용해 홍보 효과만 누리려 하기보다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외활동 주최 기업 및 단체의 여론 조작, 후기 관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외활동 참여자들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때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내 안의 특별함 찾기

어릴 땐 내 이름이 싫었다. 친구 민야도 '자연'이도 예쁜 이름인데 내 이름만 이상한 게 억울했다. 내 이름을 한 번에 알아듣는 선생님은 없었고 때 학기 첫 시간엔 자기소개가 두려워 전날 잠을 설쳤다. 하루는 옆자리 짝이 내 이름으로 이상한 노래를 지어 날 놀렸던 적도 있다. 그날 오후엔 어머니께 개명하고 싶다고 하자 어머니는 “특이한 게 아니고 특별한 이름이다”며 “특별한 게 얼마나 좋니? 세상에 하나뿐인데”란 말과 함께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때부터 내 이름이 좋아졌다. 70억이 넘는 인구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내 이름은 타인에게 더 쉽게 기억될 것이다.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의 말은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이 생각은 이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걸 다른 시야로 보게 했다.

고등학교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대학에 가면 독서실 책상에서 같은 문제집만 하염없이 푸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했다. 힘들었던 입시를 끝내고 3년간 바빴던 우리 학교에 입학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대학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기대했던 대학 생활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 들어온 학보사의 업무는 쉽지 않았다. 초반엔 화제성이 큰 주제만 골라 제언서를 작성했다. 글의 시의성과 당위성보다 익숙한 주제의 기사를 쓰곤 했다. 이런 기사들은 당연히 외대학보에서 다룰 가치가 부족하단 이유로 거절당했다. 진심을 다해 기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심했다. 그때 문득 '내가 특별함을 피해온 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난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남의 가치를 좇기 바빴다. 내가 아닌 타인에게서 특별함을 바랐던 것이다. 생각을 달리 한 후 처음 쓴 기사가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였다. 진심을 다해 조사하며 취재했다. 기사를 위해 아동과 관련된 기관을 취재하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최근에도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과잉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는 법안 역시 턱없이 부족했다. 기사를 작성하며 처음으로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인터뷰를 진행한 사회복지사는 “우리 직업군을 위해 이렇게 자세히 인터뷰한 학생은 처음이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간 겪었던 힘든 시간이 그만한 마디로 씻은 듯이 사라졌다. 나만의 특별함과 가치를 지키며 글을 쓴 이유가 눈앞에 있던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부분을 눈여겨보게 된다. 가려졌던 사회의 민낯을 마주할수록 공포감이 커져만 갔다. 차별과 소외가 가득한 사회 안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아주 조금의 변화는 만들 수 있다. 나만의 특별함을 지키면서 글을 쓰다 보면 내 손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김하형 기자

[책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을 읽고] 동물과 함께 사는 지구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단 취지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란 명칭을 사용한 건 대략 2005년부터다. 애완동물이란 단어엔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며 이를 통해 인간이 즐거움을 얻는단 의미가 담겨 있다. 반면 반려동물엔 동물을 인생의 동반자이자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 과연 우리는 반려동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작가는 유기견 ‘피파’를 키우며 유기견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입양되지 못한 유기견은 △개농장으로 들어가거나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거나 △안락사를 당하는 일이 대다수다. 개농장에서 비윤적임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와 항생제를 섞은 먹이를 제공한다. 제대로 된 배변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에선 음식물 쓰레기와 배설물 악취가 진동한다. 발을 딛기조차 어려운 가느다란 철장 속 개들의 발엔 성난 곳이 없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암컷에게 끊임없는 출산까지 요구된다. 예쁘고 작게 태어난 개는 애완동물 가게로 간다. 그렇지 않은 개는 도살장에서 식용으로 유통된다. 애완동물 가게로 간 개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태어나 높은 확률로 질병을 갖는다. 이에 또다시 버려질 위기에 처한다. 떠난 자리는 새로운 유기견이 차지하고 이런 문제는 끝없이 반복된다. 작가는 유기견 문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와 이어져 있던 사실을 밝히며 개가 가장 나은 처지의 반려동물인 동시에 최악의 처지인 식용동물이라고 말한다.

예쁜 개를 선호하는 문제 외에도 개고기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런 악순환이 이어진다. 개 식용을 찬성하는 측에선 농장동물은 먹는데 왜 개는 안 되냐며 개 식용은 우리나라의 전통이

라고 주장한다.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개는 기존 농장동물에 비해 강한 활동성을 지녀 집단 사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개 식용을 찬성할 만큼 단백질이 부족한 시대도 아니다. 위생적인 도축을 위해 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도 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개 도축 방법은 전기도살이다. 이는 대법원에서 동물보호법이 급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단 근거로 동물 학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대 측에선 개를 반려동물로 인정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외국에선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통해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규제를 강화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해 동물의 5대 자유인 △갈증·배고픔·영양불량·불안·스트레스△불편함△상해·질병·통증으로부터의 자유와 정상적 행동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 식용 반대는 동물복지를 위한 운동의 초석이 되는 셈이다.

동물권은 접근하기 어려운 권리 중 하나다. 우리사회 내에도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기에 동물 문제는 해결의 우선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물 문제는 △자본△질병△환경 등의 문제로 이어져 인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개 식용을 반대하진 주장은 결국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위한 이야기다. 작가는 말한다. ‘동물이 대접받는 나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보고] 우리는 세상에 함께 맞선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1995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을 배경으로 한다. 영화의 주인공은 삼진전자 8년 차 입사 동기 △‘보람’ △‘유나’ △‘자영’이다. 이들은 회사에서 고졸 신분을 드러낸 빨간 유니폼을 입은 채 허드렛일을 도맡는다. 어느 날 자영은 외근을 나간 지방 공장에서 독성 화학물질 ‘페놀’이 섞인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다. 하지만 회사는 페놀 유출 농도를 조작해 페놀 방류 수치가 안전하단 보고서를 발표한다. 심지어 사원들을 동원해 공장 근처 마을 주민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기까지 한다. 이후 자영은 다시 찾아간 공장 근처 마을에서 병에 걸린 주민과 황폐해진 개천을 마주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영은 동기와 은폐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폭로하기로 한다. 그들은 치열한 분투 끝에 조작된 보고서의 정황을 알아내고 이에 연루된 사장과 사원을 징계하는 성과를 이뤄낸다. 더불어 그들은 모두의 오랜 목표였던 정규직 전환과 대리 승진을 달성한다.

“I am tiny tiny person(나는 작고 작은 사람이다).” 이는 영화 마지막에 고위 임원들과 사원들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자영이 사장에게 한 말이다. 하지만 그는 이 말을 끝내자마자 사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들이 지닌 능력과 연대의 힘을 입증한다. 주인공의 말처럼 당시 회사 내 고졸 출신 여성 노동자는 매우 작은 존재였다. 고졸

여성들은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당한 차별을 겪었고 능력에 따른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힘을 모아 회사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며 주체적이고 울긋불긋한 모습을 보였다. 영화는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며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선 ‘삼진그룹의 여직원들’이 존재한다. 여성이란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당하거나 어렵게 입사를 하더라도 △성범죄△성별 임금 격차△성차별 등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동아제약이 신임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면접자에게 “여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냐” 등의 질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직장 내에선 여전히 남성과 여성 간의 공공연한 차별이 존재한다. 영화의 이상적인 결말을 현실 속에서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소수자가 단단한 입지를 다지고 그들의 당찬 포부를 이뤄낼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1059호 학보를 읽고

‘왜?’란 물음이 필요한 이유

어느덧 추석이 지났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는 줄어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다 보니 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경각심을 잃고 있다. 익숙함의 문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현상에서도 위험을 야기한다. 익숙함에 빠져 의문을 갖지 않는 상황은 사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독이 된다.

외대학보 1059호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관념을 꼬집는 기사가 있어 흥미로웠다. 3면에선 4B 운동과 변화하는 20대의 가치관에 대해 다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결혼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요즘은 결혼을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다. 또한 △성관계△연애△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했다. 이렇듯 현재 20대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다.

4면의 총장선거에 관한 기사에서도 ‘왜 총장 선거 시 학생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가’란 의문이 총장선거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단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사에선 총장선거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서술해 우리학교 학생의 민주 선거를 위한 노력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많은 학생이 총장선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총장선거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기사를 통해 부족했던 정보를 채워줄 수 있었다.

꾸준히 화두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기사에도 관심이 갔다. 아직 디지털 성범죄의 성립 조건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빈틈이 많은 점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기사를 통해 관련 인식이 나아지고 있고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번 1059호는 우리에게 ‘왜?’란 물음을 던졌다. 우리가 당연시한 일에 의문을 갖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는 누군가 용기를 갖고 나서야 하는 일이다. 이번 학보를 읽으며 용기를 갖고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단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용기를 가진 사람과 이런 노력을 신문을 통해 비추주는 외대학보에게 감사사를 전하고 싶다.

박주영(아시아·태국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59호 학보를 읽고

변화하는 시대, 다양하고 색다른 쟁점들

추석 연휴와 함께 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를 찾아왔다.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맞고 오후의 따뜻한 햇볕을 쬔다 보면 계절의 변화가 실감난다.

1059호에선 변화하는 사회 통념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뤘다. 젠더 갈등으로 시작해 4B 운동으로 확장된 지금의 문화 현상은 결코 낯설지 않다. 페미니즘 운동은 20대 가치관을 상당 부분 변화시켰고 이는 4B 운동으로 가시화됐다.

4면에서 다룬 우리학교 총장선거와 관련된 기사도 매우 흥미롭다. 기사를 통해 평소 무지했던 우리학교 총장선거 역사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지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등을 보니 우리학교의 학생 투표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양캠퍼스 총학생회의 학생 투표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른 시일 내에 결실을 보길 바란다.

5면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사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운다. 더불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성희롱 사건이 명백한 성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단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고통보다 중시하는 상황에 의문이 든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법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면에서 다룬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 기사는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목이다. 또한 플랫폼 산업과 기업에서 발생한 여러 방면의 문제를 꼬집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이해관계가 얽힌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선 플랫폼 기업이 주체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1059호에서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설문조사가 매우 인상 깊었다. 더 많은 학생이 참여했으면 하는 개인적 아쉬움이 있다. 설문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내외적인 참여 독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떨까. 외대학보가 많은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바람직한 소통 플랫폼이 되길 기대해본다.

최대한(국제지역·한국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현장에서 얻는 가치

기자가 쓴 기사는 그대로 학보에 실리지 않는다. 제출한 원고가 '데스크'라 불리는 부장과 편집국장의 검토와 퇴고를 거쳐 지면에 발행될 자격을 갖춘다. 이는 탈고를 위한 필수 과정이지만, 기사의 질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좋은 기사를 위해서 좋은 취재가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하고 좋은 기사를 위해선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다. 취재와 기사 작성은 또 다른 영역이다. 사람을 만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쓴 기사엔 힘이 실리는 법이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대부분의 △인터뷰△촬영△취재가 서면으로 진행됐다.

우리학교는 서울캠퍼스(이하 설편)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로 나뉘어 이원화 캠퍼스다. 자신이 속해있지 않은 캠퍼스를 취재해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캠퍼 거리 때문에 양 캠퍼스(이하 양캠) 모두를 방문해 취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그마저도 제한적인 수업방식으로 인해 기삿거리는 나날이 줄어 갔다.

이번 외대학보에서 다룬 대학살문에 대한 기사는 어려운 상황 속 양캠 근처 상권 소상공인의 고충을 르포 형식으로 담아냈다. 설편과 글캠 전체를 돌아다니며 취재원의 목소리를 현장감 있게 녹여내려 노력했다. 대학신문에서 르포 기사가 독자에게 주

외대인의 목소리	독자 칼럼
김현익 편집장 0thyunik@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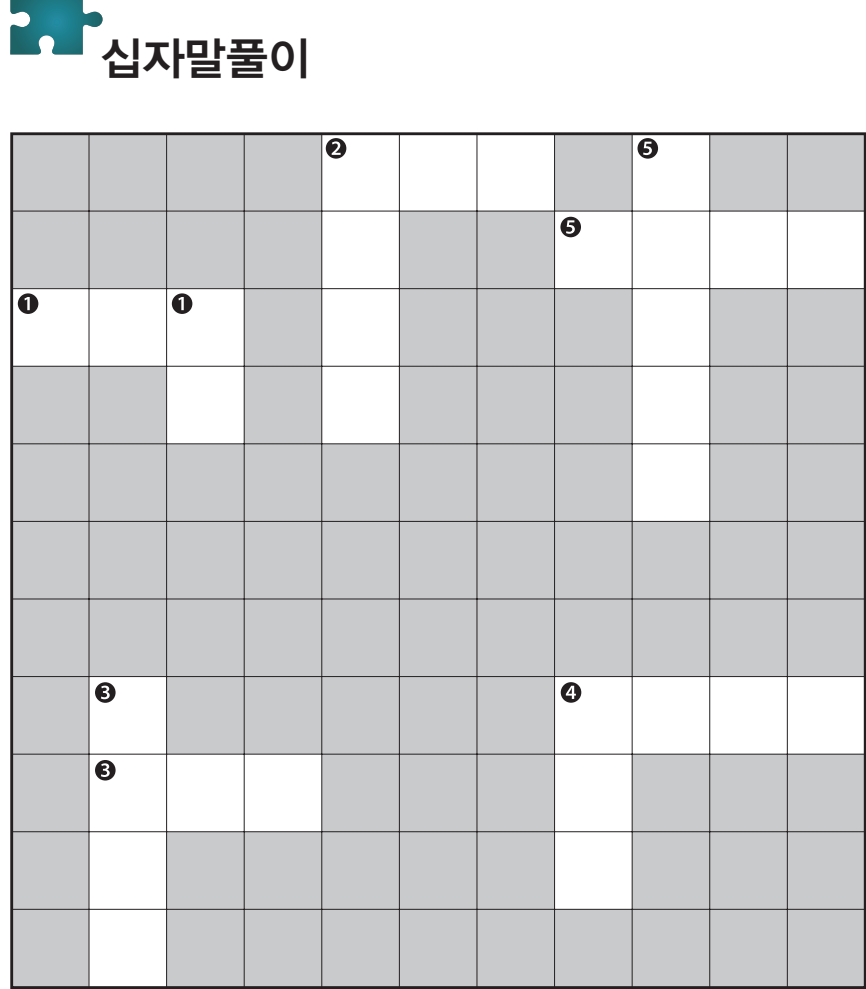
내일 무엇을 드시겠어요?

"매운맛"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일상에 당연하게 자리 잡은 엽기떡볶이, 불닭볶음면부터 근래 '마라 맛'까지 때론 한 음식이 유행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매운맛을 선호하고 소비한다.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모습에서 이런 경향이 발현된다. 우선 매운맛 소재 방송 화제성이 그 증거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허다하고 드라마 '펜트하우스', '오징어 게임' 등이 인기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 목소리는 점차 세력을 키워 윤리적 당위를 논쟁 대상으로 도마에 올린다. 아동학대부터 노키즈존 논란이 있다. 노인 폭행부터 노인 빈곤이 있다. 여성 살해부터 여성 배제가 있다. '동물판 n번방'과 같이 잔인한 동물 학대를 유희로 여기는 어부리 길고양이 돌봄을 조종하는 이도 있다. 실제 행동부터 말 한마디, 댓글 한 줄까지 여러 유형으로 표출된다. 정치권에선 이런 매운맛을 자랑한 삼아 입지를 확보하고 존재감을 드러낸다. 과거 행적이나 현재 행보가 맵다 못해 쓰러라도 매운 캐릭터가 잘 먹힌다.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고 매운맛을 판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매운맛을 찾는다. 주로 에너지가 고갈돼 힘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건강하고 소화가 오래 걸리는 쉐ldr드보단 간편하고 자극적인 인스턴트 매운맛이 선택받는 다. 마찬가지로 매운맛이 잘 팔리는 만성 고위험 스트레스 사회에선 복잡다단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을 고민하기보단 약자를 혐오하는 편이 쉽다.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성비 해소법이 요구된다.

심자말풀이	허지나<인문·철학 18>
--------------	---------------



국·부장 고정칼럼

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릴 뿐 아니라 기자가 현장에서 느낀 사회적 의미를 대학신문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전달하는 게 르포 기사를 쓰는 이유다. 취재원의 말을 빌리자면 학생이 없는 대학살문은 말 그대로 '죽음의 도시' 같았다. 코로나19 이전 시골벽적하던 주점과 음식점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뉴스 소리만이 빈자리를 채웠다. 재료값이 올랐지만 학생들을 생각해 음식 값을 올릴 수 없단 상인들의 말도 컸가 에 맺혔었다.

비대면 수업이 대부분인 재학생에게 학내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학교의 현장감을 담는 일이다. 현 시점에서 르포 기사는 학교에 방문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형식의 기사라고 생각했다. 그 외에도 △동아리△대외활동△청년 문해력에 관한 기사 모두 재학생이 위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감 있는 취재를 통해 작성한 기사다. '워드 코로나(with Corona)'란 말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다. 이젠 해 하순의 대화 소재는 단연 점진적 일상 회복이다. 언젠가 돌아갈 일상을 위해, 사람들은 복작일 우리학교를 위해 외대학보는 오늘도 현장에서 취재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김현익 편집장 0thyunik@hufs.ac.kr

사설

독일 최장수 총리 임기를 마치는 메르켈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조만간 16년에 걸친 총리직을 마감하게 된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4명의 대통령, 이탈리아는 재선을 포함한 9명의 총리를 거쳤고, 양당제인 영국도 5명의 총리가 정부를 이끌었다. 민주국가에서, 더구나 의원내각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명의 총리가 정부를 이끄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미 2018년에 차기총선을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동안 모든 독일 총리들은 타의로 사임하거나,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곤 했다.

메르켈 총리의 개인적 배경은 매우 독특하다. 1954년 서독 지역의 개신교 목사의 딸로 태어났고 출생 직후 아버지를 따라 동독으로 이주, 동독인으로 성장했다. 청년 시절 특별한 정치적 활동은 없었고 32세에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3세에 물리학과와 결혼을 했으나 5년 후 이혼을 했다. '메르켈'은 전 남편의 성이다. 35세였던 1989년 동서독 통일의 격동 속에서 정치에 입문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교육부,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동독 출신에 대한 구색 맞추기가을 인사라는 평가가 컸다. 반면에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이하 기민당) 대변인, 사무총장을 거치며 입지를 다졌고, 2000년 비밀 현금 문제로 쇼이블레 당대표가 사임하자 최초의 여성 당대표가 되면서 기민당을 이끌었다. 결국 2005년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에 승리함으로써 대연정을 이끌어 내었고, 당시 51세로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총리가 되었다.

총리 취임 직전 독일은 통일의 후유증으로 높은 실업률과 만성적인 재정적자, 저성장애 직면해 있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독일을 '유럽의 병자'로 지칭할 정도였다. 전임 슈뢰더 총리는 사민당 소속으로 노동시장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개혁을 추진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던 당시 독일은 유럽 내 가장 성장률이 낮은 국가였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20%를 상회했지만 독일 기업들은 점차 국내 투자보다는 막 체제전환을 마친 동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메르켈 총리는 공약대로 경제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고, 유럽연합(EU)에 대한 독일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미관계 개선을 주도했다. 이후 유럽재정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난민위기 등 여러 난제에서 국내외 협상을 주도하면서 독일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중 75%는 메르켈 총리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메르켈 총리가 국내외 위기 속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배경은 원칙준수와 실용성을 조화시키고,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다는 데에 있다. 그녀가 갖는 원칙 강조는 2010년의 그리스 재정위기,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 급작한 위기 상황에서 두드러졌다. 정치적 타협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국가의 역할, 시민 연대 등을 강조하면서 일관된 정책 노선을 유지한 것이다. 한편 원전폐지,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했다. 시리아 난민사태를 맞이하여 초기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2015년 여름 난민이 급증하자 국내의 거센 반대에도 100만 여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메르켈 총리의 지지 기반을 흔들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메르켈하다(merkeln)'란 유행어까지 만들어졌고, 국내 여론에 휘둘란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퓨 리서치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세계인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지도자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현재 대선 경선이 한창인 우리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연소, 최초의 여성, 최초의 동독 출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16년 간 독일을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 정치에 있어 3차례 등장했던 대연정의 사례를 감안하면 일정부분은 타협을 강조하는 정치문화에 기인한다. 반면에 메르켈 총리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국정에 있어 일관된 원칙의 기반 하에 실용성과 보편적 가치를 결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자물리학 교수인 현재의 남편과는 1998년에 재혼했다. 그러나 총리직 수행 기간 중 남편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즉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명확했고, 공직자로서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자녀호를 달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thyunik@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김현익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12 인물



우리나라의 대표 가수 **윤하**(동양·일본어 07)는 2004년 데뷔 이후 17년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곡 △기다려다△비밀번호 486△우산△헤성 등을 포함한 많은 노래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윤하**는 최고의 가수로 손꼽힌다. △작곡△작사△프로듀싱을 하며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윤하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일본어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에서 음악 활동을 하다 보니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란 걸 느꼈거든요. 다른 언어와 문화에서 오는 차이를 이해하고 국가 간 장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기 위해 일본어를 비롯한 일본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일본어를 의사소통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가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새롭게 배운 어휘를 인터뷰에서 응용하며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죠.

Q2. 가수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가수 H.O.T.와 보아를 보고 꿈을 키웠습니다. 어릴 때 H.O.T.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무대를 기뻐하며 매번 새로운 매력을 보여준 단 점이 존경스러웠죠.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TV

로 보아가 데뷔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가수가 되고 싶단 꿈을 품게 됐어요.

Q2-1. 가수로서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하나요?

영국 록밴드 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활동한 경험으로 다양한 문화가 섞인 음악을 추구하게 됐어요. 이젠 저만의 색을 유지하며 새로운 장르를 더해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Q3. 학교 입학 전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 학업과 가수 활동의 병행이 힘들진 않았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보통 음악방송은 목요일 이른 새벽부터 일요일 늦은 밤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월요일△화요일△수요일에 모든 수업을 몰아서 들었죠. 잠심 먹을 시간도 없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어요.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학업을 포기하지 않은 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Q4. 가수 활동 중 가장 보람할 땐 언제인가요?

공연을 마치고 집에 와 공연 후기를 볼 때 가장 보람합니다. ‘프로 눈팅러’와 윤하를 합친 ‘프로 윤팅러’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공연 후기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팬들이 좋아해 주는 것만큼 뿌듯한 게 없죠. 장기간의 공연이 끝나고 만끽하는 달콤한 시간이 최고의 보상이고 보람입니다.

Q4-1. 가수 활동을 하며 가장 힘들었을 땐 언제인가요?

상상했던 무대를 만들 수 없단 무력감을 느낄 때예요. 음악은 단순한 청각 장치 하나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음악엔 많은 △기획△인력△자본이 필요해요. 음악적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출도 동반돼야 하죠. 이런 여건이 되지 않아 만족스러운 무대를 만들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Q5. 그동안 발매한 음반 중 아쉬움이 남는 앨범이나 곡이 있나요?

모든 앨범과 곡이 아쉽습니다. 최선을 다해 앨범을 제작하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아쉬움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족한

을 채워 앞으로 더 좋은 앨범을 제작하고 싶어요.

Q6. 가수 활동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요?

2년간 대면 공연을 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워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언택트(Untact) 공연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면 공연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지 못하던 한계와 이로 인해 느껴지는 분명 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유를 갖자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동안의 가수 생활 중 가장 큰 공백을 가져다준 시기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유로웠기에 앨범 제작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1년이란 긴 시간을 온전히 앨범 제작에 사용하진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든 음악으로 저보다 힘들었을 사람들과 행복한 에너지를 나누고 싶어요.

Q7. 이번 해 데뷔 17주년을 맞았는데 긴 가수 생활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있나요?

가장 큰 원동력은 저를 응원해준 팬이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음악을 만들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혼자 텅텅 빈이잖아요. 가수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함께해주는 팬의 존재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Q7-1. 데뷔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을 세운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엔 △성공△성적△스타인의 시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